

— F-45 —

위의 MALT림프종이 다발성 용종증으로 발견된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노치호 · 정대영 · 김진일 · 조세현 · 박수현 · 한준열 · 김재광 · 최규용

배경 : 점막관련림프조직종양(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이하 MALT 림프종)은 림프절외성 림프종(extranodal lymphoma)으로 대다수에서 *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연관되어 있다. *Helicobacter pylori* 의 박멸치료로 80% 이상의 위 MALT림프종이 호전된다는 점에서 MALT 림프종의 조기진단 및 추적관찰에 있어서 내시경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MALT림프종은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이 없이, 위 전정부에 주로 위치한 불규칙한 과립상 점막, 다발성 혹은 단일의 미란이나 궤양, 불규칙한 형태의 궤양 및 점막주름 비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흔히 많은 다발성 용종증의 형태로 발견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78세 여자환자가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지난 6개월간 5 kg의 체중감소는 있었으나, 발열 및 야간 발한 등의 증상은 없었으며, 과거력 및 가족력에 서로 특이소견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에서 활력징후는 혈압이 128/78 mmHg, 맥박수는 분당 65회, 호흡수는 분당 18회, 체온은 36°C였으며, 림프절, 간 및 비장 종대 소견은 없었다. 내원시 시행한 말초 혈액검사는 백혈구 4600/mm³, 혈색소 9.3/dl, 혈소판 380,000/mm³였고, 말초혈액 도말 검사에서 소세포성 저혈색소성 빈혈 소견을 보였으며, 환자의 대변 잠혈 반응 검사는 양성이었다. 그 외 혈액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흉부 X-선 검사, 복부 X-선 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이었고, 위내시경 검사에서 주로 위 체부에 홍반과 미란이 동반된 약 10 mm 크기의 다발성 용종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에서 점막 고유층과 점막하층에 비정형 단핵성 림프구의 조밀한 침윤과 전형적인 림프상피성 병변이 선상피구조를 파괴하고 침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학적 염색에서 CD20과 CD79에는 양성이나 cyclin D1 염색에는 음성이었는데, 이것은 림프절외 경계부 B 세포 림프종, 즉 MALT 림프종에 부합되는 소견이다. 병기결정을 위해 흉부 및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골수 생검을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생검조직과 요소호기검사를 통한 *Helicobacter pylori* 검사도 음성이었다. 환자는 *Helicobacter pylori* 감염의 증거가 없고 전신상태가 양호하여 cyclophosphamide, adriamycin, vincristine, prednisone 으로 구성된 복합 항암 화학요법과 항 CD20 단클론성 항체인 rituximab 으로 치료하였다. 치료후 6개월째 환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이전 에 관찰되던 다발성 용종은 모두 소실되었고, 조직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어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 F-46 —

베체트병 환자에서 발병한 원발성 위 비호지킨 림프종 1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¹, 병리과²

*이병만¹ · 정석원¹ · 차희정² · 정인두¹ · 방성조¹ · 신정우¹ · 박능화¹ · 김도하¹

베체트병은 원인 미상의 혈관염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염증성 전신성 질환이다. 자가면역성 질환을 포함한 결합조직질환 및 혈관염을 가진 환자에서 종양의 발생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베체트병 환자에서 종양과의 연관성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약 100 예만이 보고되었다. 이중 고형 종양과 혈액 종양이 각각 반수정도를 차지하며 림프종 중 원발성 위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예만이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수년간의 구강 및 성기의 궤양, 피부 증상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베체트병으로 진단된 37세 남자환자에서 colchicine 과 azathioprine을 7개월 동안 사용하던 중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한 위내시경 소견에서 상체부 전벽에서부터 위각에 이르기까지 궤양을 동반한 큰 종양성 종괴가 관찰되어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diffuse large B-cell type의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 후 전산화 단층촬영 및 골수검사를 실시하여 원발성 비호지킨 림프종 IE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항암요법을 8회 실시한 이후, 완전 관해 상태가 되었고, 이후 9개월 동안 재발의 증거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